

## 소문의 본질과 확산의 이유 2025050508 컴퓨터공학과 정인식 (개념)

소문이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소문은 전달될 때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소문은 옮겨지는 과정에서 전달자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감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없어지거나 추가되면서 점점 왜곡되고 과장된다. 결국 처음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기도 한다[1].

사람들이 소문에 집중하고 퍼뜨리는 데에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다. 타인이 어떻게 사는 지 궁금해하는 심리, 남들보다 정보를 먼저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이 소문을 퍼뜨리는 원동력이 되곤한다. 우리의 언어가 진화한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

유발 하라리는 이를 ‘뒷담화 이론’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호모 사피엔스가 다수가 협력할 수 있게 된 비결이 타인에 대한 소문을 공유하는 능력 덕분이었다 라고 말한다[2]. 작은 무리를 이루어 살던 옛 인류에게는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전하고 듣는 소문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나쁜 모습이나 위험한 행동을 알아야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도 집중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오늘날까지도 확실한 정보보다 불확실한 소문에 더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런 옛 인류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3].

소문이 발생하고 퍼지기 쉬운 상황적 조건도 있다. 사회가 위기나 불안에 처해 질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야기라도 붙잡고 싶어한다. 일본의 사회학자 시미즈 이쿠타로는 근거 없는 소문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가 존재하는 경우와 둘째는 그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빈틈이 있을 때이다[4].

이처럼 상황이 불안하고 궁금증이 클수록 사람들은 소문에 쉽게 현혹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나 감정과 비슷한 소문일수록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소문은 퍼지는 중에 사람들의 편견이나 두려움, 질투같은 감정이 섞여 더욱 힘을 얻기도 한다[5].

때문에 왜곡된 소문은 때로는 한 개인을 파괴할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미하엘 셀레는 거짓 소문으로 인해 명예훼손과 기업 파산, 자살, 심지어 살인까지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소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6].

우리 각자의 부정적 감정이 소문을 증폭시키고, 그 결과 불확실한 소문이 하나의 사실처럼 굳어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문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기에, 잘못 받아들이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최진실는 동료배우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등 여러 근거없는 악성소문으로 인해 2008년 10월경 자살하였고,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당시 여러 유명인사들이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 뒷방에서 아동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확산되어 한 남성이 해당식당에 침입해 총격을 벌였던 ‘피자게이트’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소문은 인류의 발전과 본능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본능에 의해 왜곡되고 뒤틀려 나쁜 결과를 만드는 필요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 [3] 박금주, 「사실과 왜곡의 줄타기, 소문의 심리」, 2007년 10월 15일자, 한겨레

[2]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2015년, 김영사, p.49

[4] 시미즈 이쿠타로, 『유언비어: 진실이 가려진 사회의 은밀한 속삭임』, 2015년, 기담문고, 33p-34p

[5], [6] 미하엘 셀레, 『소문, 나를 파괴하는 정체불명의 괴물』, 2007년, 열대림, 17p

## 소문은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20250368 경영학과 채희찬 (문제제기)

소문의 문제는 여럿 존재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다뤄볼 소문의 문제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며, 사회를 속여 사람들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이다.

처음으로 다룰 문제는 소문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안식일이라는 전통이 있다. <sup>(1)</sup>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안식하였다는 내용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의미는 노동을 멈추고, 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날이다. 그러나 과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동을 쉬는 것만이 아닌 그 성경 구절에 매몰되어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sup>(2)</sup>사형하고, <sup>(3)</sup>사람을 치유하는 행위 또한 비난받아야 했다. 안식일이라는 전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석과 전승된 말들(일종의 소문)로 <sup>(4)</sup>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뜻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 다르게는 사람을 위한 법이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뜻으로 변질되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소문이 사회를 속여 사람들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서 다룬 주제는 소문이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잘못된 해석 즉 실수이다. 그러나 이번에 다룰 주제는 누군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소문을 퍼트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시켜 선동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나치이다. <sup>(5)</sup>퇴역 군인이었던 히틀러는 1919년 나치당 입당 후 사람들에게 반유대주의를 사람들에게 설파하였다. 반유대주의는 기독교의 힘이 강한 유럽에서부터 즉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대공황과 초인플레이션 등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살기 어려워지던 시기 전쟁 패전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덮어씌우고 아리아인과 독일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유대인을 차별 및 억압하기 시작하였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정말로 증오하기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연설을 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이 모든 행위가 그저 유대인을 수단으로써 사용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즉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 사회를, 유대인을 혐오하고 멸시하게 만들어 선동하고 권력을 잡은 예시로 볼 수 있다.

(1).<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8B%9D%EC%9D%BC>

위키백과 안식일

(2)개역개정 성경, 대한찬송가공회, 2019년 9월 17일 재판 50쇄 출애굽기 31:14-15

(3)개역개정 성경, 대한찬송가공회, 2019년 9월 17일 재판 50쇄 누가복음 13:10-17

(4)개역개정 성경, 대한찬송가공회, 2019년 9월 17일 재판 50쇄 마가복음 2:27

(5)<https://youtu.be/nc89lkRpZcM?si=qXqZ-xPfdI8O4NPk>

유튜브,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을 혐오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진짜 이유

### 1. 사회적 배경과 소문의 왜곡

소문은 불안정한 사회 상황에서 특히 쉽게 발생하고 확산된다. 경제 불황, 정치적 혼란, 전염병 확산, 전쟁 등 사회전체가 불안과 불확실성에 휩싸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빠르고 명확한 정보를 갈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공식적인 정보 전달이 느리거나 불완전하면 사람들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하며 이 과정에서 소문이 생겨난다.

불안정한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쉽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는 소문이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토양이 된다.

### 2. 권력의 작용과 소문의 강화

불안정한 상황에서 권력자는 소문의 흐름에 적극 개입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정치 세력, 언론, 기업 등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거나 조작하여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된 소문을 흘려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데 소문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력의 작용은 소문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진실 파악을 어렵게 만든다.

소문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정보의 문제로 확장되며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 3. 대중 심리와 집단적 소문 수용

대중은 위기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빠르게 집단적 믿음을 형성한다.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소문이 사실 여부를 넘어 ‘다수의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확인할 여유가 없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부족할 경우, 소문은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사회적 긴장감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확인 되지 않은 정보라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신뢰하게 되는 현상(진실 효과)이 강화된다.

결국 대중 심리는 소문의 신속한 확산과 왜곡을 가속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 4. 소문의 사회적 파급 효과

사회적 불안과 권력 작용, 대중 심리가 결합될 때, 소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

허위 소문이 퍼지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심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폭력이나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금융 시장에서는 루머 하나로 주가가 급락하거나 소비자 심리가 크게 흔들이기도 한다.

이처럼 소문은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구조와 안정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문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루머를 조심하자’는 차원을 넘

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소문의 기원은 정확히 특정 시대에 시작되었다라고 한정하기 어려울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간 사회의 형성과 함께 정보의 전달과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소문 또한 자연스럽게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선사 시대의 인간 집단에서 정보는 주로 구술을 통해 전달되었으며, 이는 생존과 직결된 주요 생활 방식이었다. 사냥, 위험 등과 같은 지식은 입에서 입을 통해 전파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문은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 소문은 특히나 중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였다. 아고라, 즉 도시 국가에서 자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공공 광장에서 소문은 정치적 사회적 여론 형성의 핵심 수단이었으며,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도 소문은 제국의 영토를 가로 지르는 정보 네트워크로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시대에서의 소문은 사회적 정보 전달과, 여러 계급 별 정보 격차를 메우는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소문은 사회적 긴장과 집단적 인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특히, 종교적 영역에서 소문은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마녀 사냥을 꼽을 수 있는데, 누군가가 마녀로 의심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공식적인 고발이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과부, 의학 지식이 있는 여성, 나이가 많은 여성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약하거나 소외된 집단에 대한 편견과 소문이 결합되어 마녀로 지목하고 고립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sup>1)</sup>

그 외에도 흑사병 시기의 소문은 사회적 혼란의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준다. 흑사병이라는 유행한 중세 시대는 당시의 의학 발달이 부족했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으며,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역병의 원인과 전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다양한 소문과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었다. 그 중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의 소수자나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트렸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대규모 박해를 받았다.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적 편견 뿐만 아니라, 대출업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에게 진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다.<sup>2)3)</sup>

중세 사회에서 소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긴장, 집단적 심리, 그리고 권력 관계를 반영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제한된 정보 환경에서 사회적 이해와 대응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이는 인간의 소통의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근대 사회에 들어,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로 통해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정보의 대량 생산과 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문의 확산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소문이 구전에 의존하였다면, 근대 사회부터 인쇄된 매체를 통해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1)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마녀 사냥의 역사, VOA, 2009. 12. 01

2) 문정주, “역사로 알아보는 의학의 역할”, 건치 신문, 2024.05.22.

3) 권홍우, “[오늘의 경제소사]흑사병이 유대인 탓?”,서울 경제, 2020.07.05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인쇄술이 발달하자, 신문이 등장하였고, 뒤이어 라디오가 발명되었습니다. 대중적 미디어의 출현으로 정보는 이전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했다. 특히 라디오는 문맹자들에게도 즉각적인 정보접근성을 제공하여 소문의 전파 속도와 범위를 더욱 더 확장시켜 나갔다.

전쟁 시기, 즉 제 1, 2차 세계 대전 동안은 소문과 선전이 특히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정부와 군사 조직은 대중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적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소문을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이 곳에서 라디오 방송과 인쇄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선전용 소문은 대중의 감정을 조작하고 전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개 중에서는 전쟁 초기부터 자국 군대의 강력한 힘과 승리를 강조하는 기사, 포스터, 전단 등을 배포하거나, 적군의 약점, 실수, 내부 분열들을 부각시켜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적군에 대한 불신을 심었고, 전쟁 중의 작은 승리라도 긍정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승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꾀할 수 있다.<sup>5)</sup>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였고, 소문과 정보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개개인은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닌, 정보 생산자나 유통자가 될 수 있었다.<sup>6)</sup>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문 확산은 기하급수적이다. 알고리즘을 타며,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빠른 속도로 전달되었다. 특히, 가짜 뉴스와 음모론 등의 확산은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개중에서는 코로나 19 당시, 명확한 치료법,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메탄올을 마시면 코로나 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위험한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체로 확산되어, 메탄올을 마셔 사망한 이란인이 20년 4월 27일 기준 500명을 넘겼다는 이란 보건 당국의 발표가 존재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문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정보 공유와 집단적 지성의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빨라진 소문의 확산 속도와 그의 진실성을 경계하면서도, 그것을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허미경, “혁명의 역사 뒤엔 항상 책이 있었다.”한겨레, 2014.02.16

5) 이후남, “[루머의 세계]나만 아는 걸 알려준다는 쾌감에 전파 속고 ‘초고속’”, 중앙선데이, 2011.09.18

6) 이현서,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가짜뉴스”, 창원대 신문, 2024.05.20

## 소문 확산의 해결 방안 20250399 유아교육과 이혜림(해결방안)

소문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던 소문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점과 소문이 사회를 속여 사람들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문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 과장되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론 소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7)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소문과 부정적 소문을 각각 들려준 뒤 반응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부정적 소문은 81%가 들었고, 86%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반면, “어느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했다”는 긍정적 소문은 18%가 들었고, 단 4%만 전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실험을 통해 볼 수 있듯, 부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확산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공포와 충격 또는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을 줄 수 있다. 자신이 들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 이야기할 땐 소문을 퍼뜨리는 것 자체에 경각심과 책임을 가지고 전달하여야 한다.

두 번째론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유할 때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다. 소문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될 수 있기에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PPT 발표 자료나 보고서를 만들 때도 출처가 표기되어야 한다. 출처가 명확하면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어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출처를 밝힌다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전달했을 때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에 정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론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통해 소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소문은 더욱더 쉽게 퍼지게 된다. 8)2023년 12월 27일에 발생한 배우 이선균의 사망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배우 이선균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마약 투약을 의심받았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악성 루머에 시달리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소문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무책임하게 퍼진 소문이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생각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한다면 거짓 소문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소문은 어떠한 사람에겐 단순히 재밌는 이야기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소문이

7) 김영현, 「나쁜 소문과 좋은 소문, 어떤 게 빠를까」, 연합뉴스, 2009년 2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0902031883000005>

8) 김민정, 「이선균 소속사 "참담·비통...허위사실 유포 자제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27일, <https://www.fnnews.com/news/202312271401196952?>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퍼지게 된다면 누군가에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기에 내가 하는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또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들은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보다 먼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보를 공유할 때는 출처를 알려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여러 사람의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소문이 왜곡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일 수 있기에 소문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